

코스피	2556.15	코스닥	743.06
(-37.64)		(+4.87)	
금리	2.936	환율	1378.50
(-0.001)		(-3.90)	



北 ICBM 대응, 韓美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軍)이 오전 7시 10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공군은 이날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뉴시스

정몽구·정의선 代 잇는 ‘똑심’ 27년 수소신념 담은 ‘이니시움’

현대차 ‘클리어리 커미티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공개

IMF외환위기에도 담대하게 투자 정몽구 결단력, 정의선 의지 ‘결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원과 결단으로 27년 축적된 기술로 완성됐다.”(장재훈 현대차 사장)

현대자동차가 27년간 수소 기술 개발에 흘린 노력이 담긴 수소전기차(FCEV) 콘셉트카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10월 31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개최된 ‘클리어리 커미티드(Clearly Committed) : 올곧은 신념’ 행사에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을 공개했다. 이니시움은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승용 FCEV의 상품과 디자인 측면의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모델이다.

이니시움은 수소전기차의 강점을 살리고 여유로운 공간과 차별화된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수소탱크 저장용량을 증대하고 구름저항이 적은 타이어 탑재 등 기술력으로 650km 이상의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연료전지시스템과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최대 150kW의 모터 출력을 구현해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보다 향상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 편리한 충전을 위해 목적지까지 수소 충전소를 경유해 갈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안내해주는 ‘루트플래너’ 기능도 제공한다. 여기에 야외 활동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내·외 V2L 기능도 탑재했다.

이날 장재훈 사장은 수소사회에 대

한 현대차의 오랜 신념이 결실인 ‘이니시움’이 탄생할 수 있던 배경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결단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정몽구 명예회장께서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모든 기업이 수소 투자에 움츠릴 때도 담대하게 투자를 진행했다”며 “수소전기차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차 시장을 더 크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대차는 1998년 수소 연구개발(R&D)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했다. 2000년 미국의 연료전지 전문 업체 UTC파워(UTC Power)와 6개월 간 공동 개발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2004년에는 독자 개발 스택을 탑재한 수소전기차를 개발했다. 2005년에는 환경기술연구소(마북연구소)를 설립하며 수소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정 명예회장의 전폭적 지지로 27년간 현대차 수소전기차 개발이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마북연구소 설립 당시 정 명예회장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은 차는 다 만들어봐라. 돈 아낀다고 똑같은 차 100대를 만들 필요 없다”며 수소전기차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명예회장의 결단으로 현대차는 2004년 독자 개발 스택을 탑재한 수소전기차를 개발했고 2013년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투싼ix Fuel Cell’을 양산했다. 이 차는 유럽 관공서를 중심으로 1000대가량 팔렸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M-커버스토리

평당 2억 vs 억대 할인분양 수도권-지방 ‘온도차’ 극심

부동산 양극화

올해 수도권 집값 1.74% 상승 서울 신흥 부촌 ‘마용성’ 급등

지방 매매가격은 1.42% 하락 세종 5.85% 대구 4.01 떨어져 강원 인제 라포레 청약자 0명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다.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에 머물렀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 서울 안에서도 핵심입지와 주변부, 신축과 구축,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온도차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매물 적체 등으로 상승폭이 줄긴했지만 상승세는 이어갔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



억대 할인분양에 나선 대구 서구 ‘반고개역 푸르지오’.

23%, 0.13% 올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5.07% 빠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하락률이 각각 4.87%, 5.26%로 모든 시·도의 집값이 동반 하락했다. 앞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2022년 역시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가 엇갈린 것은 올해 들어서다. 연초 이후 지난 21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1.74% 오른 반면 지방은 1.42% 떨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편차는 더 벌어진다. 서울의 상승률이 4.1%로 전국 1위다. 세종과 대구는 각각 -5.85%, -4.01%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부산 -2.32% ▲제주 -2.01% ▲경남 -1.34% ▲충남 -1.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강남3구·마용성 vs 노도강·금관구
사실 서울에서도 부동산 훈풍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들이 많다. 뉴스에서는 신고가 경신 소식이 쏟아지지만 정작 내 집값은 제자리인 곳이 많아서다.

실제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고점이었던 지난 2022년 10월 대비 회복률은 89%로 지방 88%와 큰 차이가 없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였던 얘기다. (4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위법성 조사 착수

당국, 시장 교란행위 엄중 조치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제출 등 불법행위 확인시 주판사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대규모 유상증자를 포함한 여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자본시장 이슈’ 전반을 다룬 브리핑을 진행했다. 함 부원장은 영풍그룹·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일 결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쟁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 제출했는지 여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취급사이자 유상증자 주관사다. 14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여서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 신주 발행을 진행할 수 있음을 공개매수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 사항 허위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미래에셋증권도 알았다면 주관사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행위나 허위기재 등의 문제점

을 따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은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이고, 불법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 검찰에 바로 통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를 금감원 차원에서 ‘즉각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당시 밝힌 주주 가치 제고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며 “10일 동안 당국도 정보를 모을 것이고, 정정명령이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정은 “ICBM 발사, 적 대응 의지… 핵무력 강화노선 불변 확인”
▲ 이준석, 대통령실 ‘윤 녹취록’ 해명에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 /사진 뉴시스

▲ 정부, 北미사일 개발 제약 위해 15개 품목 수출 금지
▲ 홍준표 “선거브로커 하나가 나라 휘젓고 있어”



▲ 추경호 “정부, 야당 선심성 예산에 단호히 입장 밝히라”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오늘 대법 선고… 1·2심 징역 2년